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내적·안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며 따라서 대상인물에 대해 더욱 극단적으로 인상을 형성하게 되리라는 가설을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는 과연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평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피험자들은 대상인물의 고향에 대한 정보(호남·영남·무정보)를 받고 나서 호남 혹은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피스트를 읽었다. 후에 그들은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여러 귀인판단과 전반적 인상·호감도·행동의 바람직성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상행동에 대한 회상기억을 요청받았다. 그 결과, 가설대로 피험자들은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 대상인물의 고향이 영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호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 정보를 받지 않았을 때에 비해 대상행동을 덜 외적인 것으로 귀인하였고 대상인물을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비록 제한된 경우에 국한되었으나, 호남대상인물의 경우에는 이 행동을 더욱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하였으며 또한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실험 2에서는 가설대로,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이 내적으로 귀인되었을 때 외적으로 귀인되었을 때보다 대상인물을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각하였으며, 또한 그 행동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이론적·실제적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사회의 한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는 지역감정에 대한 연구가 최근 수년동안 많이 수행되어 왔다. 지역감정에 관계된 정치적, 경제적인 갈등요인들에 초점을 둔 연구들(문석남, 1984; 1988; 원한식, 1987; 현대사회연구소, 1987)과 보다 심리적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들(김진국, 1984, 1987; 김혜숙, 1988; 민경환, 1989; 이진숙, 1959; 이진환, 1988), 또 지역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이화, 1983)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행해진, 지역감정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역차별에 개입된 심리적 제 측면의 실상에 대한 것이었다. 즉, 각 지방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

지는 고정관념의 내용과 호오 태도 및 지역갈등의 원인에 대한 지각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 조사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조장과 확대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지역편견이 부모의 세대뿐 아니라 서울로 이주한 2세대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가정에서의 학습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획득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김혜숙(1988)의 연구와 권위주의적 성격이 지역편견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 민경환(1989)의 연구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고정 관념이 대인관계에서의 지역차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 및 그 결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이 특정 지역인들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러한 선입관이 그 지역인의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지각하게 만들며, 그 결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본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왜곡시키며, 또 그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각 지역민(특히 영·호남인)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지역차별적 판단과 인상형성을 하도록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러한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 지속되게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민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 및 편견적 태도의 실상파악을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일상적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인상형성 및 타인에 대한 판단,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해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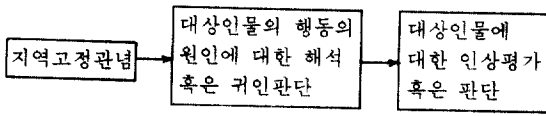
많은 연구가 도식(schema)이 인상형성이나 대인판단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Bodenhausen & Wyer, 1985; Brewer & Kramer, 1985; Crocker, Hannah & Weber, 1983; Fiske & Taylor, 1991; Slusher & Anderson, 1987). 이 연구들은 고정관념이 어떻게 자기확인적(self-confirming)과정을 통하여 유지·지속·강화되는지를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관념은 선택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만들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가 비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Hamilton & Rose, 1980). 또한,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사상을 상상하게 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건들도 오류 기억하게 만든다(Slusher & Anderson, 1987). 고정관념은 또한 귀인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외적,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해 버리는 반면 일치정보에 대해서는 내적, 기질적 귀인을 하게 한다(Crocker 등, 1983). 따라서,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일치행위의 경우보다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더 큰 처벌을 관정한다(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Bodenhausen & Wyer, 1985).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동에 까지도 영향을 미쳐 그 고정관념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소위 말하는 "자아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효과"(Rosenthal & Jacobson, 1968; Snyder &

Swann, 1978)가 이와같은 기대실현효과를 지칭한다.

이중 본 연구와 보다 직접 관련된 연구는 Bodenhausen과 Wyer(1985)와 Crocker 등(1983)이다. Bodenhausen과 Wyer(1985)의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정보처리과정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주는 편법으로 채용됨을 밝히고자 실시된 연구인데, 모의재판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인종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범죄행동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지속적·안정적인 행동으로 귀인하며 따라서 더욱 처벌적인 판단을 내림을 보여 주었다. 또한 Crocker 등의 연구에서는 도식(즉, 친절한 사람)과 일치하는 행동은 비일치행동의 경우에 비해 내적, 기질적으로 귀인되며 그 결과 더욱 부정적인 평가와 인상평정을 하도록 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Crocker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고정관념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고정관념이었지 자연발생적 고정관념이 아니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는 여러개의 행동진술문 중에 1개의 표적행동에 대한 묘사가 섞여있는 경우를 조작하여, 고정관념 일치적 행동을 반복 관찰한 후에 그와 부합되는 혹은 대조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지각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와 달리, 또 모의재판상황에서의 판단을 검토한 Bodenhausen과 Wyer(1985)의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지역별주 혹은 고정관념이 일상적 행동에 대한 귀인판단과 대인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속적 두 실험을 통해,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해석(즉, 귀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평가나 대상행동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즉, 사람들은 지역고정관념 일치적 행동에 대해서는 불일치 행동 혹은 무관 행동에 대해서보다 더욱 내적·기질적 귀인 판단을 하며 따라서 대상인물에 대한 평가나 그 행동에 대한 평가에 더욱 크게 반영하게 되리라는 가설을 검토해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귀인과정을 매개로 하여 지역고정관념이 대인평가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 1에서는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인물에 대한 귀인판단과 인상평가 및 평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실험 2에서는 특정지역인의 고정관념 일치적 혹은 불일치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석(즉, 내적·기질적 원인 혹은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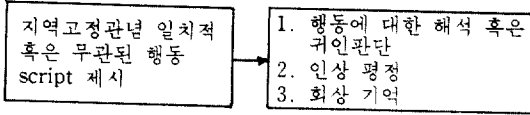


실험 계획

실험 1

조작

종속측정



실험 2

조작

종속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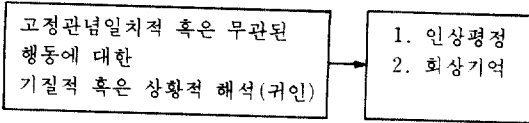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모형과 실험의 계획

외적·상황적 원인)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인상평가가 영향받게 되는지를 알아 보았다.

이제까지 기술한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설계를 간단히 도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실 험 1

실험 1에서는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원인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지역고정관념이 인상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실험 1의 주요내용과 가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고정관념이 동일한 행동정보(예: 성급한 행동 혹은 강한 자기주장적 행동)를 다르게 해석, 판단하도록 만드는가를 알아본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영남출신 혹은 호남출신이라는 정보에 의해 그 행동의 원인을 보다 내면적 성격 혹은 기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즉, 내적 귀인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보다 상황적, 외적인 원인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

(즉, 외적 귀인판단)할 수도 있다. 이전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Crocker 등, 1983),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인 경우에는 고정관념과 무관하거나 불일치하는 행동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동을 보다 내적·기질적 원인, 또한 더욱 안정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 판단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된다.

(2) 이와 같이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인 경우 고정관념과 무관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행동을 성격 및 기질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그 행동을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평정에 더욱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즉, 대상행동이 부정적 행동인 경우(실제로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경우, 고정관념은 부정적이다), 동일한 부정적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지역고정관념과 부합되는 경우(예: 영남인의 성급한 행동 혹은 호남인의 강한 자기주장적 행동)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예: 호남인의 성급한 행동 혹은 영남인의 강한 자기주장적 행동)와 비교하여 볼 때, 대상인물에 대해 더욱 부정적 인상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볼 것이다.

(3) 고정관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정보에 대한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즉,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정보에 대한 기억과 고정관념과 무관하거나 혹은 불일치한 행동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한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는 대체로 고정관념관련정보들이 무관련정보보다 더 잘 기억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정관념과 관련된 정보는 다시 고정관념 일치정보(예: 스튜어디스의 친절한 행동)와 불일치정보(예: 스튜어디스의 무뚝뚝한 행동)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두 유형의 정보중 어느 정보에 대한 기억이 더 우세해 지는가의 문제와 그렇게 만드는 구체적 과정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이 분야의 논쟁의 쟁점이 되어 왔다. 일군의 연구들(Berman, Read & Kenny, 1983; Bodenhausen & Lichtenstein, 1987; Cohen, 1981; Hamilton & Rose, 1980; Rothbart, Evans & Fulero, 1979)에서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들이 불일치 하는 정보들보다 더 잘 기억이 된다고 보고한 반면, 다른 연구들(Brewer, Dull & Lui, 1981; Hastie, 1980; Hastie & Kumar, 1979; Hastie & Park, 1986; Srull, 1981)은 고정관념불일치정보가 일치정보보다 더 잘 기억이 됨을 보고하였다. Hastie (1980)와 Brewer 등(1981)은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

가 일치정보와 비교해 더 기억이 잘 되는 것은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는 더 많은 설명과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오래 생각하고 따라서 더 잘 기억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고정관념이 서로 다른 정보에 대한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 1에서 피험자는 호남출신이거나 영남출신 혹은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없이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기술문을 읽고 후에 그 행동과 대상인물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때 행동기술문은 영남인에 대한 고정관념 혹은 호남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였다.

방 법

피험자

이주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70명의 학생이 피험자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스크립트 종류(2: 영남고정관념적 혹은 호남고정관념적), 대상인물의 출신 지역(3: 영남, 호남 혹은 무정보)과 행동에피소드 갯수(2: 1개 혹은 2개)의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행동기술문(script) 및 질문지

영·호남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에피소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10개의 짧은 행동기술문을 만들어 예비조사 1에 참여한 피험자($n=61$)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행동에피소드가 얼마나 각 지역사람들(즉, 호남과 영남)의 전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는지를 평정하였다. 이 평정을 근거로 하여 가장 영남지역인의 전형적 행동이라고 평가된 행동에피소드 2개와 호남지역인의 전형적 행동으로 평정된 행동에피소드 2개를 선정하였다. 예비조사 2에서는 위에서 선정된 행동에피소드와 동일한 행동특징을 나타내는 행동기술문을 하나씩 덧붙여 한 스크립트가 동일 행동을 나타내는 두개의 행동 에피소드들로 이루어 지도록 하여, 다시 피험자들($n=89$)이 이 네 스크립트 각각에 대해 그 지역전형성(1=전혀 전형적이지 않다, 7=매우 전형적이다)과 행동의 바람직성을 7점척도(1=매우 바람직하다, 7=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정의 평균과 각 지역인에 대해 전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영남 고정관념

적 행동기술문('성급한 행동'을 나타냄)과 호남 고정관념적 행동기술문('강한 자기주장적 행동'을 묘사함)을 각각 골랐다. 즉, 영남인의 보다 전형적 행동(즉, 성급한 행동)이지만($m=4.48$), 호남인에 대해서는 보다 중립적인($m=4.08$) 부정적 행동을 선정하여 이것을 영남 고정관념적인 스크립트로 삼았다. 또한 이 스크립트가 영남인의 전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남인 전형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54% 대 31%). 또 이 스크립트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평정된 행동이었다($m=5.3$). 호남 고정관념적인 스크립트는 지나친 자기주장 행동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역시 호남인에 대한 전형성 평정점수($m=4.45$)가 영남지역인에 대한 점수($m=4.01$)보다 높았고, 호남인 전형적이라고 본 피험자 비율이 영남인 전형적이라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53% 대 36%). 두 스크립트들이 부록에 나타나 있다.

실험 1에서 사용한 책자(booklet)에는 먼저 실험의 목적을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 형성으로 소개하는 지시문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상인물에 대한 네 개의 인구학적 정보가 나타나 있다(즉, 이름, 나이, 직업, 및 고향). 이 중에서 이름, 나이와 직업은 일정하게 고정되었던 반면 고향은 각 조건에 따라 변화시켰다(예: 경북 영천, 혹은 전남 순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대상인물의 행동에피소드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종속측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인물의 행동을 얼마나 성격적 특성이나 기질, 동기나 태도에 의해 나타났다고 보는지, 얼마나 일시적 상황이나 외적요인들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지, 얼마나 지속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변화가능한 행동으로 보는지를 각각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를 사용해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9점 척도(1=전혀 9=매우)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대상인물의 인상에 대한 17개의 양극적 특성형용사에 대해 9점 척도(0: 긍정적, 8: 부정적)상에서 평정하도록 한 질문들이 나타나 있다. 이 형용사들은 좋다-나쁘다, 지적이다-지적이지 않다, 정직하다-부정직하다,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다정하다-다정하지 않다, 사교적이다-비사교적이다, 성실하다-불성실하다, 의리있다-의리없다, 지혜롭다-어리석다, 적극

적이다-소극적이다, 진취적이다-보수적이다, 따뜻하다-차갑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강하다-약하다, 긍정하다-부당하다, 민주적이다-권위적이다, 침착하다-성급하다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지책자에는 대상인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아할 만하다고 보는지(즉, 호감도평정)를 9점척도(0=매우 그렇다 8=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답하도록 하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지책자와는 별도의 용지에 앞에서 제시된 행동에피소드에 대한 회상기억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 이 실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과 피험자의 신상에 대한 질문들(나이, 학년, 성별, 출신지역 등)이 또 다른 별도의 용지에 포함되었다.

절 차

피험자는 6명-20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은 기술된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여러 질문지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은 대상인물의 출신지역(호남, 영남 혹은 무정보)에 대한 정보를 읽었고 이어서 영남 혹은 호남고정관념적인 스크립트를 읽었다. 또한 피험자들 중 일부($n=103$)는 두가지 행동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스크립트를 읽었고 나머지($n=67$)는 한가지 행동에피소드만 읽었다. 에피소드 수를 변화시킨 것은 행동의 반복성에 의해 귀인판단이 영향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 피험자들은 약 2분 동안 이 대상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질문지의 질문에 응답하였다. 피험자들은 먼저 귀인판단을 하였고 그 다음 특성형용사들을 사용한 인상평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반적 인상평정을 묻는 문항에 답변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피험자들은 곱셈 등을 포함하는 산수 계산을 5분동안 하였고 이어서 약 3분 동안 행동에피소드를 회상하도록 요

청되었고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 느낀바와 자신의 학년, 성, 나이를 기입하였다.

결 과

귀인과 인상평정 그리고 회상기억에 미치는 출신지역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영남, 호남 스크립트별로 대상인물의 출신지역(3)×행동 에피소드 갯수(2)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의 결과와 상관 없이 귀인점수와 인상평정에 대해서는 영남, 호남 스크립트별로 각각 출신지역의 효과를 사전비교검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사전비교는 각각의 스크립트에 대해서 무정보조건과 영남출신지역 조건, 그리고 무정보조건과 호남출신지역조건을 각각 비교하였다. 사전비교검증법을 사용한 것은 실험실시 이전에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인 효과를 예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외의 분석은 이원변량분석에 국한하였다.

귀인. 먼저, 네가지 귀인유형의 평균점수가 각 스크립트별로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스크립트 모두에 대해서 외적으로 보다는 내적으로, 또 변화가능하기 보다는 안정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호남스크립트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남 스크립트의 경우 내적귀인, 외적귀인, 안정성귀인, 변화가능성 귀인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화가능성 귀인 점수에 대한 출신지역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2, 78)=3.19, p<0.05$). 이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에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표 1 참조). 행동 에피소드 갯수 효과는 외적귀인($F(1, 78)=9.85, p<0.01$)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예상대로 에피소드 수가 둘일 때 하나일 때보다 덜 외적으로 귀인하였다(2개 : 4.46, 1개 : 5.85). 호남스크립트의 경우, 외적귀인 점수에 대한 행동 에피소드 수의 효과가

<표 1> 영남·호남스크립트에 대한 귀인평정과 인상평정의 평균(실험 1)

	내적귀인 ¹	외적귀인 ¹	안정성귀인 ¹	변화가능성 ¹	행동의 바람직성 ¹	전 반 적 호 감 도 ²	특 성 형용사평정 ²
영남스크립트	6.69	5.02	6.83	4.71	3.15	5.24	4.96
호남스크립트	7.09	4.59	6.66	4.94	2.78	5.67	4.67

주. 1. 9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그렇다) 상에서의 평점임
2. 9점척도(0: 긍정적, 8: 부정적) 상에서의 평점임

<표 2> 출신지역정보조건별 내적·외적 귀인의 평균 (실험 1)

출신지역정보 스크립트	영 남	호 남	무정보
내적 귀인			
영남 스크립트	6.61	6.86	6.61
호남 스크립트	7.1	7.34	6.82
외적 귀인			
영남 스크립트	4.36	5.25	5.46
호남 스크립트	4.41	4.28	5.11

주. 숫자는 9점척도(1=전혀, 9=매우)에서의 평가 점수임

유의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1, 80)=3.38, p<0.07$). 그러나 이 효과는 예상과는 달리, 호남 행동에 피소드 수가 둘($m=4.96$)일 때 하나($m=4.00$)일 때보다 오히려 더 외적으로 귀인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안정성귀인에 대한 출신지역과 에피소드 갯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2, 80)=2.85, p<0.07$. 에피소드 수가 하나일 때는 호남 출신에 대해 가장 안정된 행동으로 평가하였으나(영남: 7.00; 호남: 7.64; 무정보: 6.45), 에피소드 수가 둘일 때는 호남인에 대해 오히려 덜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영남: 6.72; 호남: 5.83; 무정보: 6.76).

외적귀인·내적귀인·안정성 평가·변화 가능성 평가들에 대해서 각 스크립트별로 출신지역효과에 대한 사전비교를 실시한 결과, 영남고정관념적 스크립트에 대한 외적 귀인에 있어 영남고향 대 무정보의 사전비교($F(1, 78)=4.38, p<0.05$)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표 2에 각 스크립트에 대한 외적귀인 점수가 출신지역정보조건별로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상대로 영남고정관념적 행동에 대해서 그 대상인물의 출신지역이 영남일 때 아무 정보도 받지 않았을 때에 비해 덜 외적으로 귀인하였다. 그러나 호남 스크립트에 대한 외적귀인에 있어서는 출신지역정보에 따른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적귀인이나 안정성 귀인에 있어서는 양 스크립트 모두에 대해 출신지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귀인(즉, 안정성 귀인의 또 다른 측정)에 있어서는 영남 스크립트의

<표 3> 출신지역정보조건별 안정성·변화가능성 귀인의 평균(실험 1)

출신지역정보 스크립트	영 남	호 남	무정보
안정성 귀인			
영남 스크립트	7.0	7.07	6.43
호남 스크립트	6.83	6.52	6.64
변화가능성 귀인			
영남 스크립트	4.43	4.32	5.39
호남 스크립트	4.66	4.93	5.25

주. 숫자는 9점척도(1=전혀, 9=매우)에서의 평가 점수임

경우, 무정보조건에서보다 영남출신지역조건($F(1, 78)=4.22, p<0.05$)과 호남출신지역조건($F(1, 78)=5.24, p<0.05$)에서 이 행동이 덜 변화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호남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변화가능성에 대한 출신지역정보별 평가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3에 안정성과 변화가능성 귀인 점수의 평균이 각 스크립트에 대해 출신 지역조건별로 나타나 있다.

다음 영남고향과 호남고향만을 대비시켜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형태에 대해 출신지역과 에피소드 수의 효과를 MANOVA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도 역시 각각의 스크립트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남 스크립트에 대해 출신지역 주효과(Wilks' lambda $F(2, 51)=2.98, p<0.06$)의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남 스크립트의 경우 영남출신 대상인물에 대해서 호남출신 대상인물에 대해서보다 덜 외적으로 귀인하여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차이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호남 스크립트의 경우 아무런 유의미한 MANOVA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대상인물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귀인판단에 있어서, 가설대로 영남출신 대상인물이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했을 때 호남출신 대상인물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덜 외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변화가능성 귀인에 있어서, 영남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영남출신 정보를 받았을 때 그 변화가능성이 더 낮다고 평정하였다.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에피소드 갯수가 하나일 때, 예상대로 대상인물이 호남출신이면 영남출신인 경우보다 더 안정적·지속적 행동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그러나 에피소드 수가 들어있을 때는 호남출신에 대해 오히려 덜 안정된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인상평정. 인상평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행동의 바람직성 평가, 특성형용사들에 의한 인상평가 그리고 대상인물이 얼마나 좋아할 만한가에 대한 평정(즉, 호감도). 이중 특성형용사들에 의한 인상평가는 각 형용사에 대한 응답을 합한 총합점수를 일반적 인상점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먼저, 이 세 유형의 인상평정점수의 평균을 각 스크립트 별로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두 스크립트 모두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며, 전체 인상이 약간 부정적이며 또한 대상인물이 별로 좋아할만하지 않다고 평정하였다.

출신지역 정보와 행동에피소드 수의 이원변량분석을 각 스크립트 별로 실시한 결과 호남 스크립트의 경우, 특성형용사의 총합점수에 대한 에피소드 수의 주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F(1, 79)=6.34, p<0.05$). 즉, 행동에피소드가 하나($m=4.42$)일 때 둘($m=4.83$)일 때보다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영남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인상평정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아무런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세 유형의 인상평정 점수 각각에 대해서 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스크립트 별로 출신지역효과에 대한 사전비교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호남스크립트의 경우 대상인물이 호남출신인 것으로 알았을 때 무정보조건과 동일한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평정하였으나($F(1, 79)<1$), 영남고향조건에서는 무정보조건에 비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F(1, 80)=4.91, p<0.05$). 영남스크립트의 경우, 비록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 방향은 예상대로였다. 즉, 영남고향조건에서 무정보조건에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에

<표 4> 출신지역정보조건별 행동의 바람직성 평가 평균(실험 1)

출신지역정보 스크립트	영 남	호 남	총 청	무정보
영남 스크립트	2.89	3.25	2.70	3.32
호남 스크립트	3.28	2.62	3.14	2.43

주. 숫자는 9점척도(1=전혀, 9=매우)에서의 점수임.

각 스크립트에 대한 출신지역정보조건별 행동바람직성의 평균이 나타나 있다.

다음, 특성형용사에 의한 평정의 총합점수를 살펴보면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각 스크립트별로 요인분석을 하여 각 요인별로 출신지역과 행동 에피소드수의 이원변량분석검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법과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영남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다섯개 나타났는데, 제 1요인은 '어리석음·성급'요인(전체 변량의 22% 설명), 제 2요인은 '비다정·냉정'요인(13%)이고, 제 3요인은 '의존적·소극적임'요인(10.7%)이었고 제 4요인은 '부정직·불성실'의 요인(8%)이었고, 제 5요인이 '나쁨'요인(7%)이었다. 호남 스크립트에 대해 동일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여섯 요인이었다. 제 1요인은 '나쁨·어리석음·부당함'요인(전체 변량의 16% 설명), 제 2요인은 '독립·적극·권위적'요인(13%), 제 3요인은 '비다정·비사교적'요인(11%), 제 4요인은 '냉정·불친절'요인(8%), 제 5요인은 '불성실·의리없음·강함'의 요인(7%) 이었고, 제 6요인이 '부정직'요인(6%)이었다.

각 요인별로 각각의 스크립트에 대한 인상평가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각 요인에 속하는 특성형용사의 평정점수의 평균 점수에 대해 출신지역 정보변인과 행동 에피소드 갯수 변인의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영남 스크립트의 경우 '어리석음·성급'요인 점수에 대해 출신지역의 효과가 유의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2, 77)=2.70, p<0.08$). 이 결과는 예상대로 무정보조건($m=5.47$)이나 호남조건($m=5.30$)에서보다 영남조건($m=5.94$)에서 대상인물을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5에 영남스크립트에 대한 '어리석음·성급'요인의 출신 지역 별 점수평균이 나타나 있다. 또한 '비다정·불친절'요

<표 5> 영남스크립트에 대한 '어리석음·성급'요인의 점수 평균

출신지역정보	영 남	호 남	무정보
	5.94	5.30	5.47

주. 점수는 9점 척도(0-8)의 점수로, 클수록 더 부정적(어리석음·성급)임

인에 대한 에피소드 수의 주효과가 나타나 ($F(1, 78)=6.13, p<0.05$), 에피소드 수가 하나($m=5.0$)일 때보다 둘($m=5.8$)일 때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이 더욱 불친절하고 다정하지 않다고 평정되었음을 보여준다. 호남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독립적·적극적·권위적'요인에 대해 에피소드 갯수의 효과가 나타났다, $F(1, 79)=7.48, p<0.01$. 즉, 에피소드 갯수가 하나($m=1.28$)일 때 둘($m=2.04$)일 때보다 더욱 독립적·적극적·권위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요약하면, 호남인이 호남고정관념적 행동을 했을 때는 영남인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와 비교해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영남사람이 영남고정관념적인 성급한 행동을 했을 때에 비해 더 성급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상기억. 회상기억은 2명의 판단자가 제시된 행동에 피소드와 일치하는 기억인지를 각각 판단하여 둘의 평균을 기억의 지표로 삼았다. 회상기억은 이전의 문장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그 뜻이 일치할 때 완전기억으로 간주했다. 즉, 호남 스크립트의 경우 첫번째 에피소드가 '발언을 많이 하고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여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와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계속 자기 의견을 고집했다'의 두가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두번째 에피소드는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별것아닌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였다'는 뜻으로 보아 가능한 총 회상점수를 3점으로 하였다. 영남 스크립트의 경우도 첫번째 에피소드는 '심부름간 동생을 기다리다가 안절부절 못하고 스스로 나섰다'와 '동생을 만나자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야단쳤다'는 두가지 뜻을 포함하고 두번째 에피소드는 '학교식당앞에 늘어선 학생들 끝에 잠시 서 있다가 참지 못하고 매점으로 가버렸다'는 뜻을 포함하여 총 3점을 완전 회상으로 하였다. 또한 오류회상의 갯수도 점수화하여 원래 내용보다 더 긍정적인 오류(예: '토의시간에 적극 참여했다')는 정적 편파로, 또 더 부정적인 오류(예: '동생을 무작정 때렸다')는 부정 편파로 삼아 각 편파에 대해 1점을 부과하였다.

이와같이 채점된 회상기억 점수에 대해 출신지역과 에피소드 갯수에 대한 이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먼저 영남 스크립트의 경우 정확한 회상수에 대한 출신지역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73)=4.17, p$

〈표 6〉 출신지역정보조건별 회상기억 및 부적편파기억 점수 평균(실험 1)

출신지역정보 스크립트	영 남	호 남	무정보
정확한 회상 수			
영남 스크립트	2.07	2.31	1.73
호남 스크립트	2.11	1.66	1.70
부적편파 기억			
영남 스크립트	0.19	0.15	0.31
호남 스크립트	0.25	0.55	0.56

$<.05$. 즉, 영남스크립트에 대한 회상기억은 호남출신 지역조건에서 영남출신조건이나 무정보조건에서보다 정확한 회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6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다. 또한, 당연히 행동에피소드 수가 둘($m=2, 36$)일 때 하나($m=1.68$)일 때와 비교하여 정확한 회상수가 더 많았다, $F(1, 73)=9.40, p<0.01$. 호남 스크립트의 경우도 정확한 회상수에 대하여 출신지역의 주 효과가 나타났다, $F(2, 74)=3.89, p<.05$.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대상인물을 영남출신으로 생각했을 때 호남출신이나 아무 정보를 받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욱 그 행동을 잘 기억하였다. 또한 행동에피소드수의 주효과가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관한 정확한 회상수($F(1, 74)=11.05, p<0.05$)에 대해 유의미하였다. 즉, 행동에피소드수가 둘일 때 하나일 때 보다 정확한 회상수가 더 많았다(에피소드수 2 : 1.89 : 에피소드수 1 : 1.56). 그외의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 귀인점수와 인상평점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먼저 영남스크립트의 경우, 외적귀인점수와 전반적 호감도점수와 유의미한 부적상관($r=-0.23, p<0.05$)이 나타났고 또한 행동의 바람직성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였다($r=0.27, p<.05$). 또한, 내적귀인 점수와 '어리석음·성급'요인점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r=0.26, p<0.05$)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호감도와 안정성기인 점수($r=0.23, p(0.05)$)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예상대로 영남고정관념적 행동이 외적으로 귀인될수록 전반적 호감도가 높았고 행동은 더 바람직하다고 평정되었다. 또한, 이 행동이 내적으로 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귀인될수록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은 더 어리석고 성급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안정된 것으로 귀인될수록 호감도가 낮았다. 호남스크립트의 경우, 외적귀인점수가 클수록 오히려 전체 인상이 더 부정적으로 되며($r=0.24, p<.05$) 또한 더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될수록 전체 인상이 더 좋아졌다($r=-0.25, p<.05$). 또한 외적귀인점수가 커질수록 덜 독립적·적극적·권위적으로($r=0.39, p<.01$) 평정하며, 내적으로 귀인될수록($r=-0.55, p<.01$) 또 더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될수록 대상인물을 더욱 독립적·적극적·권위적이라고 평정하였다($r=-0.35, p<.01$).

기타 분석. 귀인판단과 인상평정에 대해 피험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남($n=8$)과 호남($n=15$)고향의 피험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피험자 출신지역 변인만의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성형용사의 총합 점수에 대한 피험자 출신지역 효과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F(1, 21)=8.58, p<.01$. 이것은 영남출신 피험자들이($m=4.21$) 호남출신 피험자들($m=4.89$) 보다 대상 인물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나타낸다.

논 의

우리나라 지역고정관념(특히 영·호남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가설에 대한 일부 지지결과가 나타났다. 즉, 적어도 영남 고정관념적 성급한 행동에 대해 대상인물이 영남출신이면 덜 외적으로 귀인하며 앞으로의 행동변화가 능성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영남사람이 영남 고정관념적인 성급한 행동을 했을 때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이 내적으로 귀인될수록 대상인물이 덜 지혜롭고 덜 침착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행동이 안정된 것으로 귀인될수록 호감도가 낮아졌다.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행동에 피소드 수가 하나일 때는 호남사람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안정된 행동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호남사람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이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될수록 전체 특성평정이 더 긍정적으로 되며, 또한 외적으로 귀인될수록 더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사람으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덜 '독립적·적극적·권위적'으로 지각되었다.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한 귀인에 있어서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즉, 에피소드 수가 둘일 때 하나일 때보다 오히려 더 외적으로 귀인되며(일반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리라고 기대된다), 동시에 더 부정적인 인상평정이 나타났던 점, 또한 에피소드 수가 하나일 때는 호남출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하지만 두개의 에피소드인 경우에는 호남출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하였다—를 얻게 된 것은 아마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남고정관념적인 에피소드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호남고정관념적 에피소드 중 두번째 에피소드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주인과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고, 따라서 이 경우 대상인물의 행동이 더욱 외적 요인(즉, 주인)에 의해 촉발된 행동이라고 지각한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행동이 외적으로 귀인될수록 대상인물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지각되고 따라서 더욱 부정적으로 인상을 형성하게 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에피소드 수가 하나인 경우와 둘인 경우를 분리하여 귀인평정 점수와 인상평정점수와와의 상관을 구했을 때, 에피소드 수가 하나인 경우에 비해 에피소드 수가 둘인 경우 '독립·적극·권위적' 요인 점수와 귀인평정 점수가 추론된 방향으로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내적귀인과의 상관 $r=-0.66$; 외적귀인과의 상관 $r=0.51$; 안정성귀인과의 상관 $r=-0.46$). 즉, 에피소드 수가 둘인 경우, 대상인물의 행동이 내적으로, 또 안정된 것으로 귀인될수록 대상인물은 더욱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또 권위적이라고 지각되었으며 외적으로 귀인될수록 덜 독립적, 적극적, 덜 권위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반면, 에피소드 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와같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추론할 때, 그러면 왜 호남인에 대해서는 이 행동이 덜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되었는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 한가지 가능성은 우리 대학생들은 호남인의 반항적이고 강한 기질은 정치적·경제적 외부 억압 상황에 의해 오랜 기간동안 차별받아 온 데에 기인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김진국, 1988) 그러한 의식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남인에 대한 정형화된 행동기술훈

을 해석하는 데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실험 1에서 나타난 회상기억의 결과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보다 무관하거나 불일치하는 정보가 더 잘 회상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Hastie, 1980 등)에서 안정되게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마도 대상인물이 기대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더욱 생각해 보고 해석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실험 1은 그러나 지역고정관념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인상평가와 회상기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귀인판단과 인상평가 및 기억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단지 지역고정관념에 의거한 귀인판단과 인상평가 및 기억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지역고정관념의 보다 정확한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적 행동에 대해 내부적 원인과 상황적 원인에 의한 설명을 제공하였을 때 지역고정관념이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를들어: 영남인의 성급한 행동에 대해 상황적인 이유가 주어지면 인상이 보다 긍정적으로 되는가?). 이러한 것을 실험 2에서 검토하였다.

실 험 2

실험 1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고정관념이 행동에 대한 원인 해석과 대인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실험 1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과정에 대해 지역 고정관념이 귀인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즉,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행동에 대해 보다 더 내적 귀인을 함), 그 결과 인상평가가 달라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실험 1에서는 귀인판단과 인상평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을 뿐이었고, 귀인판단에 의해서 인상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특정 지역출신의 행동에 대한 내적 혹은 외적인 귀인 설명이 과연 인상평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2의 가설은 영남전형적 행동('성급함') 혹은 호남전형적 행동('자기주장적인')에 대해 내적·성격적인 설명이 주어지면 외적·상황적 설명이 주어질 때보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특성을 더 강

하게 지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영남(호남) 고정 관념적인 성급한(자기주장적) 행동에 대한 내적 귀인은 외적 귀인의 경우보다 대상 인물에 대해 더욱 성급한(자기주장적) 사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 2에서는 검토하였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되 첫번째 에피소드만 사용하였다. 이것은 실험 2에서 호남스크립트의 두번째 에피소드가 예기하지 않았던 결과를 자아내었기 때문이다.

방 법

피험자

이주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180명의 학생이 피험자로 참석하였다.

행동기술문과 질문지 책자

행동기술문은 실험 1에서와 동일하나 영남·호남 각각 첫번째 에피소드만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상황적 설명이나 혹은 성격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 호남 고정관념적인 행동('학급토론 시간에 강하게 주장함')에 대한 상황적 설명은 "이것은 그 전날, 이제까지의과 토론에서 그가 너무 암전하기만 하였다고 한 친구가 놀림 비슷하게 지적하였기 때문이었다"이었고, 성격적 설명은 "이것은 그가 워낙 자기주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였다. 영남 고정관념적인 행동('성급하게 동생을 야단침')에 대한 상황적 설명은 "이것은 진호가 자신이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수업시간에 늦을까봐 무척 조바심이 났기 때문이었다"였고, 성격적 설명은 "이것은 진호가 워낙 성급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였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2에서 사용한 책자도 인상형성 지시문, 대상인물에 대한 인구학적 정보, 행동에피소드 그리고 여러 종속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실험 1에서와는 달리 대상인물의 출신지역은 호남, 영남 혹은 무정보로 변화시켰고, 종속질문들의 순서도 먼저 행동의 바람직성 평정, 특성형용사 평정, 좋아할만한 정도 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지 귀인질문을 하였다. 그외에는 모두 실험1과 동일하였다.

절 차

실험 2의 절차는 실험1과 동일하였다.

결 과

실험 2의 결과는 호남·영남 스크립트 각각에 대해

출신지역과 귀인정보의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얻었다. 결과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조작점점으로서의 귀인평정,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평정과 행동평가, 그리고 행동에피소드와 귀인정보에 관한 회상기억을 각각 분석하였다.

귀인평정(조작점점). 먼저,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관한 네가지 귀인평정 각각에 대해 출신지역과 귀인정보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귀인 점수에 대해 출신지역의 주효과가 나타났고($F(2, 84)=4.52, p<0.02$), 외적귀인 점수에 대해 귀인정보의 효과가 나타났다, $F(1, 84)=6.24, p<0.02$. 표 7에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평균점수가 출신지역과 귀인정보 별로 나타나 있다. 내적귀인에 대한 출신지역 주효과의 소재 파악을 위해 비교 분석을 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고향($m=6.80$)에 대해 영남고향($m=5.53$)에 대해서보다 더욱 내적으로 귀인하였다, $F(1, 84)=9.06, p<0.01$. 또한, 외적귀인 점수는 예상대로 내적귀인 정보조건($m=5.87$)에서보다 외적귀인 정보조건($m=6.71$)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귀인 점수에서 외적귀인 점수를 뺀 차이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예상대로 내적귀인 정보 조건에서 외적귀인정보 조건에서보다 더 큰 점수가 나타났다. 그 외의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84)=51.02, p<.01$, 외적귀인 : $F(1, 84)=39.4, p<.01$, 안정성귀인 : $F(1, 84)=25.17, p<.01$, 변화 가능성귀인). 표 7에 나타나 있듯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 성격적인 설명이 제공되면 상황적인 설명이 제공되었을 때보다 예상대로 그 행동을 보다 내적으로 귀인하고 덜 외적으로 귀인하며 더 안정된 행동이며 덜 변화가능하다고 지각하였다.

인상평정. 인상평정도 행동의 바람직성, 호감도 및 전체 인상평정 점수 각각에 대해 각 스크립트 별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영남 스크립트에 대한 분석 결과, 행동의 바람직성에 대한 귀인정보 효과가 나타났다, $F(1, 84)=6.89, p<.01$. 즉, 예상대로 영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한 내적인 설명($m=3.31$)이 제공되었을 때 외적인 설명($m=4.18$)이 제공되었을 때보다 덜 바람직한 행동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호감도평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출신지역 효과가 나타났다, $F(2, 84)=4.87, p<.01$. 이러한 효과는 부정조건($m=4.73$)에 비해서 호남고향조건($m=5.93$)이나 영남고향조건($m=5.30$)에서 대상인물을 덜 좋게 평정했음을 나타낸다. 그 외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에 내적·외적 귀인정보에 따른 각각의 인상평정 점수가 각 스크립트 별로 나타나 있다.

<표 7> 출신지역과 귀인정보에 따른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의 점수평균(실험 2)

출신지역 귀인정보	영 남		호 남		무 정보	
	내적	외적	내적	외적	내적	외적
영남 스크립트						
내적귀인점수	5.33	5.73	6.93	6.67	6.40	5.80
외적귀인점수	6.27	6.60	6.07	6.53	5.27	7.00
호남 스크립트						
내적귀인점수	6.67	6.33	7.27	5.87	7.00	5.87
외적귀인점수	4.27	6.73	3.53	6.40	3.93	7.07

주. 숫자는 9점척도(1=전혀, 9=매우) 상에서의 평정 점수임.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한 귀인평정에 있어서는 네가지 귀인평정 모두에 대해 귀인정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84)=4.89, p<.05$, 내적귀인 : $F(1,$

<표 8> 각 스크립트 별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에 따른 인상평정의 점수평균(실험 2)

스크립트 귀인정보	영 남		호 남	
	내적	외적	내적	외적
행동바람직성	3.31	4.18	2.42	2.71
호감도	5.42	5.22	5.73	5.27
전체인상평정	4.97	4.93	4.69	5.27

다음, 특성형용사 평정에 대한 주요인분석과 varimax적교회전을 한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어리석음·성급' 요인(전체 변량의 26.8% 설명), 제 2요인은 '다정하지 않음·강함'요인(12.7%), 제 3요인은 '의존·소극적' 요인(8%), 제 4요인은 '의리없음·냉정'요인(8%), 제 5요인은 '보수적·권위적' 요인(7.2%)이고 제 6요인은 '부정직함' 요인(5.9%)이었다. 각 요인을 이루는 특성형용사들의 평균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어리석음·성급'

<표 9> 영남스크립트에 대한 인상평정 요인의 귀인정보
 보별 점수 평균(실험 2)

요 인	귀인정보	
	내 적	외 적
'어리석음·성급' 요인	5.24	4.72
'비다정·강함' 요인	2.80	2.22

주. 숫자는 9점척도(0=전혀, 8=매우)상의 평정점수임.

요인과 '다정하지 않음·강함' 요인에 있어 귀인정보의 효과가 의미있게 나타났다($F(1, 84)=4.15, p<.05$, 제 1요인; $F(1, 84)=4.30, p<.05$, 제 2요인). 표 9에 그 평균이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설대로 영남고 정관념적인 행동이 내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될 때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때보다 더욱 '어리석고 성급하며' 또한 '다정하지 않고 강한' 기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호남스크립트에 대한 인상평정에 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특성형용사에 의한 전체 인상 평정에 대한 귀인정보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84)=12.2, p<.01$. 이것은 내적귀인정보조건($m=4.69$)에서 외적 귀인정보조건($m=5.27$)에서보다 오히려 대상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정했음을 나타낸다.

다음, 특성형용사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6개 요인의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타났다. 제 1요인은 '의존적·소극적·약함' 요인(전체 변량의 18.1% 설명), 제 2요인은 '어리석음·성급' 요인(17.7%), 제 3요인은 '불성실·불친절' 요인(8.8%), 제 4요인은 '다정하지 않음·냉정·권위적' 요인(8.1%), 제 5요인은 '부정적·보수적' 요인(7.5%)이고 제 6요인은 '비사교적임' 요인(6.8%)이었다. 각 요인을 이루는 특성형용사들의 평균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제 1요인('의존적·소극적·약함')에 대한 귀인정보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84)=96.59, p<.01$. 표 10에 나타나 있듯이, 호남고정 관념적 행동이 내적으로 귀인되면 외적으로 귀인된 경우보다 더 긍정적(즉, 더 독립적·적극적·강함)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비다정·냉정·권위' 요인에 대해서도 귀인정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1, 84)=10.04, p<.01$. 표 10에 보이듯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은 내적으로 귀인될 때 외적으로 귀인될 때보다 더욱 다정하지 않고 차갑고 권위적인 행

<표 10> 호남스크립트에 대한 인상평정 요인의 귀인정보
 보별 점수 평균(실험 2)

요 인	귀인정보	
	내 적	외 적
'의존적·소극적·약함'요인	2.10	5.42
'비다정·냉정·권위적'요인	6.17	5.37
'비사교적'요인	3.42	2.58

주. 숫자는 9점척도(0=전혀, 8=매우)상의 평정점수임.

등으로 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사교적임' 요인에 대해서도 귀인정보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F(1, 84)=4.93, p<.05$, 이는 내적귀인정보 조건에서 외적 귀인정보 조건에서보다 대상인물을 덜 사교적으로 지각하였음을 나타낸다.

회상기억. 각각의 스크립트의 행동기술문에 대한 회상기억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실험1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상기억을 채점하여 정확한 회상의 수(2점), 부적 회상수 및 정적 회상수에 대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적·외적 귀인정보에 대해 기억을 정확히 한 사람 수에 대한 출신지역과 귀인정보 효과를 검토하는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남스크립트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정확한 회상수와 긍정적 편파수에 대한 분석은 아무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편, 부정적 편파수에 대해서는 귀인정보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F(1, 84)=5.15, p<.05$, 내적귀인정보 조건($m=0.24$)에서보다 외적귀인정보 조건($m=0.47$)에서 더욱 부정 편파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귀인정보에 대한 회상은 귀인정보효과가 유의미하였다, $\chi^2(1)=19.76, p<.01$. 즉, 내적귀인정보($n=14$)보다 외적귀인정보($n=35$)를 더 잘 회상하였다.

호남스크립트에 대해서는 귀인정보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chi^2(1)=52.11, p<.01$. 이 결과 역시 내적귀인정보($n=12$)보다 외적귀인정보($n=45$)를 더 많은 사람들이 회상시 언급하였음을 나타낸다.

논 의

실험 2의 결과 영남고정관념적인 성급한 행동에 대한 성격적·기질적 설명이 상황적 설명보다 대상인물에 대해 더 성급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다정하지 않고 강한

기질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게 하였고, 또한 그 행동이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각하도록 하여 실험 2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호남스크립트의 경우 귀인정보가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예상과는 달리 내적귀인정보 조건에서 외적귀인정보 조건에서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전체 인상평정이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호남고정관념적인 강한 자기주장 행동이 내적정보 조건에서 외적정보 조건에서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강한 행동으로 평가되어 전체 인상이 보다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데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예상과 일치하게 내적정보 조건에서 외적정보 조건에서보다 대상인물이 덜 다정하고 더 차갑고 더 비사교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와같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이 외적으로 귀인될 때 내적으로 귀인되었을 때 보다 더 의존적·소극적이고 약한 사람으로 지각된 것은, 실험 1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남스크립트의 특징은 그 행동기술문이 냉정하고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자아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극적이라는 긍정적 인상을 유발시키므로 이 행동이 외적으로 귀인되면 내적으로 귀인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약한 사람으로 지각되었을 수 있다. 또다른 가능한 설명은 실험 2에서 제공된 외적 귀인정보의 성질상(즉, “친구의 비판때문에 극도로 자기주장적인 행동을 하였다”) 대상인물이 타인의존적이고 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약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어쨌든 실험 2의 결과는 행동에 대한 귀인설명이 대인평가에 영향을 미침 - 즉, 내적귀인이 외적귀인보다 그 행동이 표출하고 있는 특성에 대해 더욱 강하게 지각하게 한다는 사실 - 을 보여 주었는데 호남스크립트의 경우 표현하고 있는 행동의 복잡성과 사용된 귀인정보의 특성에 의해 그 영향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다.

실험 2에서 나타난 하나의 흥미있는 부수적 발견은 행동에 대한 내적귀인 정보보다는 외적귀인정보가 더 잘 회상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내적귀인정보보다는 외적귀인 정보가 더 높은 정보가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만큼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회상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적귀인 정보는 행동기술문과 이미 일치되는 정보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기억이 덜 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기억의 차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회상시에 내적귀인정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언급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성격추론을 하게 되고(즉, 기본적 귀인오류를 저지른다) 따라서 실험2에서 주어진 내적귀인정보는 중복적인 정보로 정보가치가 별로 없고 새롭거나 중요한 정보가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지고 따라서 후에 회상을 요청받았을 때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고정관념이 대상인물의 행동에 대한 원인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상평가가 더욱 극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단계적 실험을 통해 보여 주었다. 즉, 영남고정관념적 성급한 행동을 영남사람이 행했을 때 그 행동이 덜 외적으로 귀인되었고 동시에 더욱 성급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며(실험 1), 또한 이 행동이 내적으로 귀인될수록 더욱 어리석고 성급한 사람으로 평가되었다(실험 2).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으나, 적어도 첫번째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호남사람이 호남고정관념적인 행동을 하면 더 안정된 행동으로 귀인하며 또한 덜 바람직한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험 2의 결과 호남고정관념적인 자기주장 행동은 내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되면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이 다정하지 않고 차가운 것으로 지각되나 한편 더욱 독립적·적극적으로 지각되어 전체 인상은 더 긍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호남고정관념적 행동기술문이 복합적인 성격특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보다 이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서 상정한 모형 -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인상평정이 영향받는다는 가설 - 이 그 자체로는 타당하나, 어떤 대상인물에 대한 인상평정은 고정관념의 이와같은 인지적 영향외에도 각 지역인에 대한 감정이나 동조의식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고, 우리 대학생들의 호남인에 대한 동조적 의식이나 호의적 감정이 호남스크립트에 대한 평가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쳐 고정관념의 효과가 덜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실험 1에서는 고정관념 일치정보보다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회상기억이 우세하였다. 또한, 실험 2에서는 외적귀인정보가 내적귀인정보(즉, 선행되는 행동기술문과 일치하는 정보)보다 더욱 회상이 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정관념 불일치 정보나 외적귀인 정보가 보다 정보 가치가 높아 더 깊은 주의와 생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Hastie, 1980 등). 한가지 주시할 사실은 이와같이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보다 더 회상이 잘 된다면 고정관념 불일치정보의 제시가 고정관념의 수정으로 귀결되리라는 기대가 가능해 지는데,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면 고정관념 불일치정보의 제시가 반드시 고정관념의 수정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사람들은 고정관념 불일치 행동에 접하게 되면 그에 대해 더 깊게 숙고해 보지만 그 결과 그러한 행동은 보다 외적으로 귀인되므로 대상 범주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은 수정되지 않게 된다. 물론,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중국에 가서는 고정관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Weber & Crocker, 1983), 그 영향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과정에 의해서 더디게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이 일부 지지되었으나 강한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본 연구의 방법상의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고정관념적인 행동기술문을 얻기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 지역인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은 추상적 성격차원의 개념이고 그러한 개념을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은 지역고정관념의 병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나은영, 1992) 따라서 대학생들의 지역고정관념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고정관념의 효과를 약하게 나타내게 한 또하나의 방법상의 문제점은 대상인물의 출신지역이 여러 다른 정보(나이, 직업 등)와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덜 특출하게(salient) 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지역고정관념의 특출성을 변화시켜 귀인판단과 인상평정을 검토하면 지역고정관념의 영향에 대한 보다 강한 증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지역고정관념이 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즉, 지역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내적 귀인을 하고 따라서 인상

평가가 더 극단적으로 된다는-은 지역고정관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고정관념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반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성고정관념이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남성 혹은 여성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예를 들어, 여성의 수동적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내적·성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더욱 극단적 평가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의 타당성을 후속 연구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의식의 과정과 영향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즉,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고정관념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인상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나라 지역감정의 병폐의 심각성은 경제적·정책적 차별도 그러하지만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이 부딪히게 되는 심리적·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와 따돌림 또 왜곡되고 편파된 지각이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한 개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면(김진국, 198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고정관념이 실제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실험 연구를 통해 밝혀 주었다. 이와같은 심각한 귀결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고정관념의 수정작업과 노력이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예를 들어, 지역범주의 특출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나 지역범주의 재범주화 작업-재범주화(Dechamps & Doise, 1978), 개인화(Wilder, 1978), 혹은 하위범주(예: 호남지역인)보다는 상위범주(예: 우리나라 국민)의 강조(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정책적·교육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국(1984). 지역민간의 편견적 태도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6, 1-27.
- 김진국(1987). 영·호남 대학생들의 상호간 차이 지각 연구. 사회심리학연구, 3-2, 113-147.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방안.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 성원사.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세대 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한국심리학회 편). 서울: 성원사.
- 나은영(1992). 외집단으로부터의 위협이 집단관련 신념의 지속성에 미치는 효과: 영·호남 대학생들의 출신지역 관련 신념연구. 한국심리학회 '92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88.
- 문석남(1984). 지역편차와 갈등에 관한 한 연구. 한국 사회학, 18, 184-209.
- 민경환(1989).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적 편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4(2), 146-168.
- 원환식(1987). 지역감정은 어디서 생기는가. 신동아, 12, 386-395.
- 이이화(1983). 한국의 파벌. 어문각.
- 이진숙(1959). 팔도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선입관념. 사상계, 12, 74-87.
- 이진환(1988). 부산지역인의 타 지역인에 대한 인상 및 태도.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한국 심리학회 편). 서울: 성원사.
- 현대사회연구소(1987). 한국사회 지역갈등연구.
- Amir, Y.(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71, 319-342.
- Berman, J.S., Read, S.J., & Kenny, D.A. (1983). Processing inconsistent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11-1224.
- Bodenhausen, G.V., & Lichtenstein, M.(1987). Social stereotypes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71-880.
- Bodenhausen, G.V., & Wyer, R.S.(1985). Effects of stereotypes on decision making and information-process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67-282.
- Brewer, M.B., Dull, V., & Lui, L.(1981).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56-670.
- Brewer, R., & Kramer, K.S.(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 Cohen, C.E.(1981). Person categories and person perception: Telling some boundaries of the processing effects of the prior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41-452.
- Crocker, J., Hannah, D.B., & Weber, R.(1983).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Dechamps, J.C., & Dois, W(1978). Crossed category memberships in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Gaertner, S.L., Mann, J., Murrell, A & Dovidio, J.F.(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Hamilton, D.L., & Rose, T.L.(1980). Illusory corre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stereotypic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32-845.
- Hastie, R.(1980). Memory for behavioral information that confirms or contradicts a personality impression. In R. Hastie, T.A. Ostrom, E.B. Ebessen, R.S. Wyer, D.L. Hamilton & D.E. Carlston(Eds.) *Person memory: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pp 155-178). Hillsdale, N.J.: Erlbaum.
- Hastie, R., & Kumar, P.(1979). Person memory: Personality traits as organizing principles in memory for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5-38.
- Hastie, R., & Park, B.(1986). The relationship

-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Rosenthal, R., & Jacobson, L.F.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Rothbart, M., Evans, M., & Fulero, S. (1979). Recall for confirming events: Memory process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343-355.
- Slusher, M.P., & Anderson, C.A. (1987). When reality monitoring fails: The role of imagination in stereotype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53-662.
- Snyder, M., & Swann, W.B., Jr. (1978). Hypothesis testing processe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202-1212.
- Srull, T.K. (1981). Person memory: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 440-462.
- Wilder, D.A. (1978). Reduction of Intergroup discrimination through individuation of the out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361-1374.

<부 록>

호남고정관념적 행동 스크립트

진호는 모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어제 그는 과토론 시간에 학우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가 제일 발언을 많이 했을 뿐 아니라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였으며, 다른 학우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실은 토론 도중에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첫번째 에피소드) 수업이 끝난 후 진호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그런데 일하는 가게에서 주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별것 아닌 주인의 작은 심부름에 진호는 부당하다고 대들며 따지고 들었고, 자신이 맡은 일 이외의 것은 주인이 해야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두번째 에피소드)

영남고정관념적 행동 스크립트

진호는 모대학 학생이다.

오늘 아침 그는 동생을 심부름 보냈다. 그런데 동생은 심부름 가는 도중에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잠시 시간을 보내느라 지체되었다. 진호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는 스스로 가게로 나섰다. 도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진호는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야단부터 쳤다. (첫번째 에피소드)

점심때 진호는 학교식당으로 갔는데 그 앞에 학생들이 줄서 있는 것을 보고 몇 분 동안 줄 끝에서 있다가는 참지 못하고 학교 매점으로 가 버렸다. (두번째 에피소드)

The Effect of Regional Stereotypes on Attribution and Impression Judgment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resent experiment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people attributed the behavior that was consistent with regional stereotypes to internal - stable factors and as a consequence, they would form more extreme impression about the target person. Experiment 1 examined whether the regional stereotypes indeed affected attribution and impression judgment. Subjects read Honam-or Youngnam -stereotypic behavior episodes after they had been informed of the hometown (Honam, Youngnam or no information) of the target person. Subjects were then asked to make attribution judgment and impression judgment (general impression, liking, evaluation of the desirability of the target behavior), and they were also asked to recall the episodes that they had read about the target person. The results showed that as expected, subjects attributed the Youngnam-stereotypic behavior of the target person less to external factors and tended to evaluate the target person as being more impatient and unwise when they thought he was from Youngnam than when he was from Honam or when no information was provided. In the case of the Honam-stereotypic behavior, subjects attributed the target behavior more to stable factors and evaluated it as being less desirable when the target person was from Honam than in other conditions, although these results were limited to certain situations. The results of Experiment 2 demonstrated that as expected, subjects perceived the target person as being more impatient and unwise when the internal attribution regarding Youngnam -stereotypic behavior was provided than when external attribution was provided. They also evaluated the target behavior less desirable in the former case than in the latter cas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s well as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